

제65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9월 18일)

## password: Feeling-감정 코드로 보는 전시품

문정훈, 305호 도자공예-백자실 18:00~18:30

박물관 소장품과 감정, 느낌을 나눠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져 수많은 시간이 지나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지금, 소장품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손길과 정성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보는 눈길까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2019년 이 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담겨있습니다. 어제까지 소장품의 아름다움에 반했다면 오늘은 소장품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1. 모란 넝쿨무늬 항아리

### 정성: 장인의 손 끝 정성이 느껴지는 항아리

꽃의 줄기가 끊어질까, 잎의 모양이 흐트러질까..장인의 손에 쥔 칼 끝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천천히 모양을 뚫기 시작하여 완성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담아 모란을 표현하였습니다. 안밖의 두 가지 항아리와 뚫을새김으로 표현한 모란, 장인의 정성이 느껴지시나요?



그림2. 분청사기편

### 이촌동 프리덤: 분청사기의 자유로움

이 사기편들은 깨진 것일까? 깨뜨려진 것일까? 흰 흙을 다양하게 꾸민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은 자유롭습니다.

깨진 편들의 모습도 자유로워 보입니다.

박물관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그림3. 시가 쓰인 전접시

### 낭만: 멋을 먹는다

등근 접시에 낭만적인 7언시(七言詩)가 적혀 있습니다. 접시는 음식을 먹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이 접시는 조선의 시대를, 선비의 풍류를, 작가의 멋을 담은 접시인 듯합니다.

나의 멋을 표현할 전시품은 무엇인가요?



제65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9월 18일)

##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9) 화가가 바라본 우리 땅, 마음의 풍경으로 거듭나다

오다연,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의 마지막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며 고민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설관의 서화실 관람객들 중에는 산과 물이 그려진 산수화를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 산수화는 보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먼저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화가가 실재하는 장소(명승명소)에 직접 가서 자연을 마주보고 스케치한 후,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고민하며 연습하고, 해석하여 완성한다는 실경산수화의 제작과정이었습니다. 즉 화가의 발걸음과 시선을 따라 가면 그림을 좀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죠. 그런 의미에서 프롤로그의 <단발령망금강산도>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발령에 오르는 구불구불한 길, 단발령에 올라 탁트인 광경을 바라보는 인물들, 안개와 구름으로 처리된 중경, 저 멀리 보이는 빛나는 금강산. 그림 속 여행객 중 한명이었던 정선은 집으로 돌아와 이 때의 인상을 재구성하여 화첩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물과 영상을 통해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했습니다. 무언가를 정의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하기보다는 생각하고 상상할 거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전시실의 벽면에서 각 부의 내용과 관련된 당시 사람들의 글이나 시구를 넣어보았습니다. 제2부 “화가, 그 곳에서 스케치하다”에서는 화가가 가지고 갔을 행낭 속 소지품 및 화가의 경로를 알려주는 지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부 “실경을 재단하다”에서는 뱃길을 따라 강변풍경을 담은 정수영의 실경산수화 제작과정을 재연한 다큐멘터리식 영상을, 전시실의 입구에는 금강산의 실제 풍경사진과 그림을 교차편집한 <21세기 금강산 여행>이라는 감상용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레이터가 곁에서 그림설명을 해주는 것과 같은 오디오가이드를 만들어 혼자서도 쉽게 전시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안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데, 각 작품 앞에 서면 작품 해설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전시품과 설명카드를 왔다갔다하며 보는 대신 귀로 들으며 그림 감상에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이 우리에게 은은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옛화가들의 시선이 닿은 산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그 특별한 아름다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날마다 자신만의 마음의 풍경을 새롭게 그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17세기 일본 도자陶磁문화의 전개

정미연, 311호 일본실 19:00~19:30

일본 규슈 아리타(有田) 지역 일대는 임진왜란 이후 유입된 한반도 도자 기술을 바탕으로 1610년대에 일본 최초로 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덕진요景德鎮窯의 청화자기를 모델로 한 이마리 도자(伊万里燒)는 중국 채색자기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등 급속한 발전을 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를 통해 유럽 등에 도자기를 수출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마리요는 초기 이마리와 고구타니(古九谷), 가키에몬(柿右衛門) 양식, 긴란데(金襴手)로 대표되는 고이마리 양식(古伊万里) 등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양식의 도자를 생산하여 일본 각지에 유통시켰습니다. 한편 사가(佐賀) 지방의 나베시마번(鍋島藩)이 도쿠가와쇼군가(德川將軍家)에 도자를 헌상하기 위해 만든 나베시마 도자(鍋島燒)는 정밀하고 세련된 무늬를 그 특징으로 하며 일본도자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가마쿠라, 무로마치시대(1185~1568) 세토(瀬戸)·미노(美濃) 지방에서는 중국 도자를 모방한 시유施釉 자기가 활발히 만들어졌습니다. 무로마치시대 후기에 등장한 “차노유(茶の湯)”라는 독특한 미의식은 일본 국내생산 자기의 지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노유”란 차를 마시는 방법과 차 도구, 건축과 정원, 회화, 글씨, 그리고 정신적 훈련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차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 결과 모모야마시대(1568~1615)에는 센노리큐(千利休, 1522~1591)의 등장을 비롯해 다기茶器를 중심으로 하는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일본도자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때 조선에서 일상용기로 생산된 도기들이 ‘고려다완高麗茶碗’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유입되어 다인茶人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p>청자 산수무늬 평발 染付山水文平鉢 초기이마리 양식 에도시대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p>	<p>고구타니 쌍조무늬 접시 古九谷雙鳥文皿 고구타니 양식 에도시대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p>	<p>구로오리베 다완 黒織部茶碗 미노(美濃)지방 생산 도자 에도시대 16세기말~17세기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p>



##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11)

### 피블라와 브로치

노희숙, 기획전시실 19:00~19:30

피블라는 옷이 어깨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핀입니다. 모양이 아름다워 장식적인 효과도 지닙니다.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은 대부분 금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금속에 호박을 더하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금속을 결합시켜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피블라는 양식이 무척 다양하여 부장품의 연

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에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머리 모양 피블라는 여성이, 용 모양 피블라는 남성이 주로 착용하였습니다.

브로치는 주로 의복에 사용되었고, 어깨나 가슴 부근에서 옷을 여미는 데 사용되는 피블라와 동일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초기에는 남성들만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여성을 묻은 매장지에서도 널리 발견되었습니다. 죽은 이의 머리에 꽂힌 채 발견되어 머리핀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 피블라(스푹크스 모양), 기원전 6세기 초, 길이 5.3cm,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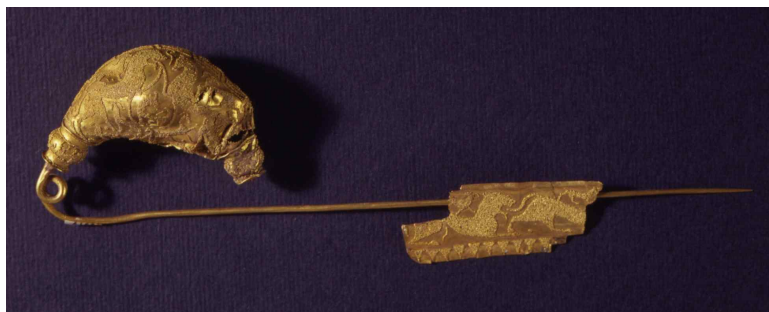


그림 2. 피블라(거머리 모양), 기원전 7세기 중반, 길이 15.0cm,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



그림 3. 브로치, 기원전 6세기, 길이 6.6cm,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